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6년 5월 8일(주일) 제1098호

5월은 맞춤전도집회의 계절

소중한 이에게 “예수의 사랑을”



순맞춤전도집회(첫주 시작), 윤희주의 행복콘서트(8일), 행복드림 콘서트(23일)

5월은 맞춤전도집회의 계절이다. 교회 곳곳에서 맞춤전도집회가 한창이다.

5월 첫 주부터 순별로 순맞춤전도집회가 시작됐고, 오늘(8일)은 대학청년부 여호수아공동체가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부모님을 위한 전도집회 '윤희주의 행복콘서트'가 열린다. 이달 23일에는 전도사역본부가 주최하는 65세 이상 부모님 초청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가 막 오른다.

순맞춤전도집회는 성인공동체 순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순원들의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지인 등을 순모임에 초대해 교제하면서 전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순맞춤전도집회를 위해 순원들은 전도대상자들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해 순모임에 함께 어울릴 수 있게 배려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는 지난 5일 강원도 철원을 다녀오는 '등잔 밑 여행'으로 순맞춤전도집회를 실시했다. 140명이 참석할 정도로 호응이 뜨거웠다.

여호수아공동체는 어버이날인 오늘(8일) 오후 4시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한 전도집회 '윤희주의 행복콘서트'를 개최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 180명이 참석한다. 김승수 목사(대학청년부 본

부장)가 설교하고, 윤희주 장로가 게스트로 출연한다.

이번 달 23일(월) 저녁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는 부모 초청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 콘서트'가 '나의 부모님께 소중한 행복을 드립니다'를 주제로 막 오른다. 아직도 맞춤전도집회 신청은 늦지 않았다. 온누리 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나 목회행정실(02-3215-3214)에서 신청할 수 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러브소나타 오카야마 집회 11일 앞으로

5월 18~19일 오카야마 심포니홀

러브소나타 오카야마 집회가 11일 앞으로 다가왔다. 러브소나타 오카야마는 5월 18일과 19일 양일 간 '미래를 잇는 꿈'을 주제로 막 오른다. 일본에서 열리는 24번째 러브소나타 집회다. 18일에는 리더십포럼과 가스펠나이트 집회가, 19일에는 오카야마 심포니홀에서 교회세미나와 러브소나타 오카야마 집회가 열린다.

오카야마 현지는 막바지 집회준비가 한창이다. 오카야마 지역뿐만 아니라 히로시마현, 카가와현, 에히메현 등지에서 64개 교회가 협력

했다. 오카야마 현지에서는 집회준비와 지난 달 14일 발생한 구마모토 지진 피해지역 구호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러브소나타 오카야마 실행위원회는 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러브소나타 행사 기간 동안 특별 모금함을 설치하기로 했다.

러브소나타 본부도 마지막 집회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브소나타 오카야마 집회에는 한국인 봉사자 약 460여 명이 참가한다. 12일 오후 7시30분 서빙고 두란노홀에서 2차 참가자 교육이 있다. 문의: 02-749-1149

창조신앙교육 축제 막 오른다

5월 26~28일 양재 온누리교회

창조신앙교육 축제가 5월 26~28일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에서는 26~27일 성인, 28일 초등학생, 청소년, 대학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아시아창조학술대회(AACC)는 26~28일까지 열린다.

26일과 27일에는 차세대 교사, 가정사역자, 교회 리더십을 위한 '자녀양육 솔루션' 세미나가 진행된다. 26일에는 '청소년 부모를 위한 창조솔루션'을 주제로 하주현 교수(경희대학교 의학전공)와 현지교사들이 토론회를 한다. 저녁집회에서는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가

'예수님의 친구를 키우는 교육'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27일에는 자녀의 취업과 결혼을 걱정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웹 드라마, 패널토의를 하고 이재훈 담임목사의 메시지가 이어진다. 28일에는 어린이부터 청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창조과학캠프 및 비전축제'가 열린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http://ccfe.kr)에서 하면 된다.

문의: 02-3215-3533, 02-419-6465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W공동체, 미혼모 돌보는 ‘애란원’을 가다

학업마치고, 자립 도와 줄 탁아, 국어, 영어, 수학교사 필요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온누리교회

본지에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역, 기독교 기관 및 단체, 이웃들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열네 번째 주인공은 청소년 미혼모들을 돌보고 있는 애란원이다. 지난달 30일 W공동체 청년들이 그곳을 다녀왔다.

대한민국 미혼모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다고 한다. 매년 성인 미혼모의 비율은 줄어드는데 청소년 미혼모는 늘고 있다. 미혼모 복지시설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1만5천 명의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는데 1만1천 명은 임신중절수술을 하고, 4천 명 정도가 출산을 선택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출산을 선택하면 경제적 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입양과 양육이라는 기로에 또 다시 놓이게 된다. 출산을 선택한 청소년 미혼모 4천 명 중에 1천6백 명 정도가 입양을 선택한다.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출산은 고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누군가의 돌봄이 있다면 사정이 달라지겠지만 대부분의 청소년 미혼모들은 도움을 받지 못한다. 혼자 아이를 돌봐야 하는 지경에 놓인다. 성인도 혼자서 아이 키우는 일이 쉽지 않은데, 청소년 미혼모가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말할 것도 없이 힘든 일이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것보다 청소년 미혼모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주위의 시선이다. 나이는 어리지만 출산이라는 책임감 있는 선택을 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질책뿐이다. 청소년 미혼모들이 그 힘든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갑자기 닥친 일을 어떻게 감당할지 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가족이나 학교, 사회가 청소년 미혼모들을 끌어안아 주지 못해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미혼모를 인정하는 사람은 3.5%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청소년 미혼모들이 환영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청소년 미혼모들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청소년 미혼모들을 따뜻하고, 포근하게 안아주고 있다.

소문난 봉사자 W공동체 청년들

온누리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미혼모 섬김사역은 대학청년부 W공동체가 앞장서고 있다. 지난 7년 동안 청소년 미혼모 시설 애란

원을 섬기고 있다.

지난달 30일 신촌역 앞 W공동체 청년들이 미혼모 복지기관 애란원에 봉사하러 가기 위해서 모였다. W공동체는 매월 한 번씩 애란원을 방문해 청소년 미혼모들이 부모교육을 받는 동안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다. W공동체 지체들이 나누는 이야기 주제는 단연 애란원에서 만난 아이들이다.

“누구는 키가 이만큼 크고, 누구는 벌써 몇 살이야.”

애란원 이야기를 주고받는 W공동체 청년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다.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 그만큼 설레나 보다. 봉사하러 가는 버스 안에서 반가운 사람들을 만났다. 애란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준(가명)이 엄마와 수진(가명)이 엄마다. 그녀들은 W공동체 청년들을 금세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W공동체 청년들과 7년 동안이나 봐왔으니 서로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날 W공동체 청년들이 들른 곳은 한 교회였다. 이 교회에서 애란원이 주최한 미혼모 돕기 바자회가 열리고 있었다. W공동체 청년들은 청소년 미혼모들이 물건을 사고파는 동안 아이들을 돌봐줬다. 자기 아기를 남에게 맡기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을텐데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 W공동체가 그만큼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섬긴 덕분이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돈독하게 쌓여 있었다.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W공동체 청년들은 소문난 봉사자다. 그도 그럴 것이 아이들을 돌보는 솜씨가 능수능란했다. 분유 먹이는 것부터 기저귀 갈아주는 손놀림에 막힘이 없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 총각들이라고는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2009년부터 7년 동안 섬기면서 생긴 노하우다.

W공동체 청년들에게 자녀를 맡긴 한 엄마는 “아이를 맡길 때마다 기억해주시고, 잘 돌봐주셔서 안심이 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아이 뿐만 아니라 애란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잘 부탁 한다”고 말했다.

소리(가명) 엄마와 우준(가명) 엄마

바자회에서 열심히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엄마들의 얼굴이 유난히 어려 보였다. 애란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40여 명의 미혼모 중에 90%가 청소년이다. 올해 18살인 소리(가명) 엄마는 웃음이 정말 많다.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됐다는 것을 빼고는 또래와 다를 것이 없었다. 그 맑은 웃음 뒤에 숨겨놓은 아픔이 있었다. 부모님은 그녀가 3살 때 이혼했다. 엄마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아버지는 병이 들어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녀는 어릴 시절부터 외톨이가 되어 침대에서 생활했다. 중학교 3학년 때 임신을 했다. 임신사실을 숨긴 채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퇴



W공동체 청년이 아이와 놀아주고 있다.

해야 했다. 그리고 2014년 9월 애란원에 입소해 아이를 낳았다. 딸의 출산을 반대하던 아버지께 아이를 안겨드리자 무척 기뻐했다. 그 아기가 병든 아버지께 드린 최고의 선물이었다.

“혼자였을 때는 외로웠는데 소리(가명)가 생기면서 외롭지 않아요. 엄마라고 부르면서 재롱을 피우면 그간 힘들었던 일들을 모두 잊을 수 있어요. 앞으로 대학교에도 가고, 좋은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아까 버스에서 만난 우준(가명)이 엄마도 올해 18살이다. 그녀는 중학교 2학년 때 임신을 했다. 당시에는 아이를 임신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몰랐다. 한참을 끙끙 앓다 어렵게 가족들과 아이 아빠에게 임신사실을 말했다.

“아이 아빠는 임신중절수술도 생각했지만, 저는 아이를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아버지가 애란원을 소개시켜줬다. 어떤 부모가 임신한 딸을 시설에 보내고 싶었을 까.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이 미어졌을 것이다. 그녀도 애란원에서 우준(가명)이를 낳았다. 그녀는 애란원에서 생활하면서 검정고시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애란원에서 보낸 지난 4년이 꿈만 같다고 했다.

“애란원이 아니었다면 아이를 포기했거나 입양 보냈을 거예요. 애란원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니랴, 아이 돌보랴 힘이 들지만 우준(가명)이만 생각하면 힘이 솟는다.

“아이를 임신한 순간부터 저는 다른 인생을 시작했어요. 힘들고, 눈물 나는 시간들도 많았어요. 저에게 다른 능력은 없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큼니다. 앞으로 멋진 디자이너가 돼서 우준(가명)이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청소년들은 연약할지 몰라도 엄마가 된 청소년들은 강했다. 비록 환영받지 못한 임신으로 집을 나와 시설에 입소했지만 그녀들의 선택

은 인생의 긍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애란원, 이렇게 도와줍니다

애란원은 1960년 미국 장로교 소속 반애란 선교사가 거리의 고아와 성매매 여성들을 돌보기 위해 설립했다. 지금 애란원은 미혼모들의 출산부터 자립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기임신지원센터’에서는 출산준비를 못한 여성, 출산 후 아기를 양육하고 싶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 여성들을 돌보고 있다. ‘애란원’에는 미혼모들의 기본생활시설 애란원과 마포 애란원이 있다. 그곳에서 미혼모들이 산후조리와 자립을 준비한다. 최대 1년 6개월 동안 지낼 수 있다.

애란원과 마포 애란원을 나온 미혼모들은 다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애란영스빌’과 ‘애란모자의 집’에 입소할 수 있다. 그곳에서 최대 3년까지 지내며 학업을 마치고,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자립을 준비할 수 있다. 학업은 위탁형 대안학교 ‘나래대안학교’에서 지속한다. 지역사회로 나간 미혼모들은 ‘나·너·우리 한가족센터’에서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자립을 마칠 때까지 지원한다. 어쩔 수 없이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들은 ‘애란세움터’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자립을 준비한다.

애란원에는 봉사자가 항상 부족하다. 더 많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애란원 봉사자가 되면 좋겠다. 청소년 미혼모들이 학교에 가 있는 동안 아이를 돌보는 탁아와 국어, 영어, 수학을 가르쳐 줄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있는 봉사자가 필요하다. 지난해부터 33년이 넘는 애란원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공사가 한창이다. 후원을 하는 것도 좋다.

문의: 최주옥 사무국장(애란원) 02-393-4723

김희영 팀장(W공동체) 010-4403-4173

후원: 신한은행 100-030-286486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사명자의 고백

사도행전 20:17~38

“눈물, 성령의 강권하심, 사명, 양떼를 잘 돌보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의 이별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일행이 선교여행을 모두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밀레도’라는 항구도시에서 이르러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는 장면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예수 믿고 변화된 리더십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불러서 에베소에서의 삶과 사역을 회고하면서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진정한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성장의 모델이기도 하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석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장로들의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이 저와 너무나 차이가 있어서 설교하기가 죄송하다는 의미입니다.

비전 때문에 흘리는 눈물

사도 바울의 고백과 권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다섯 가지 중심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물입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19~20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기적의 통로였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에베소에서 가장 많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마술과 주술,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에베소에 있던 거짓된 영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떠나갔습니다. 바울이 입었던 옷이나 물건에 손만 대도 병이 나을 정도로 신비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적들은 사도 바울을 높이려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와 미신이 가득한 사람들이 기적이 있어야만 믿음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많이 나타났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너희에게 행했는지 잘 알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통해 나타난 능력과 기적에 대한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겸손하고,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놀랍게 쓰임 받은 것보다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는 것을 기억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은 영적인 성실, 진실, 살아있는 양심의 증거입니다. 그는 눈물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겸손과 눈물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방지일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백세가 넘으셔도 설교를 하실 정도로 강건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책을 쓰셨는데 눈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분이 97~98세에 남미에서 열린 선교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당시 젊은 목회자들도 컨퍼런스에 매번 참석하기가 힘들어서 때로는 졸고, 숙소에서 쉬고 나오기도 했는데 그분은 제일 앞에서 지팡이를 짚고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컨퍼런스에 참석하셨습니다. 지금도 지팡이를 들고 제일 앞에 계셨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방지일 목사님이 100세가 넘으셨을 때 어느 출판사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목사님께 건강의 비결이 무엇인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특별한 비결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라고 기자가 다시 묻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을 지킨 운동이 있다면 심장운동이라고 할까요?” 심장운동이 무엇일까요. 방지일 목사님은 새벽 두 세 시면 잠에서 깨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시는데 말씀의 오묘함을 볼 때마다 감격의 눈물이 솟구쳐 오른다고 합니다. 말씀 앞에서 통회의 눈물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눈물이 솟구칠 때마다 심장이 고동을 친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것을 심장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건강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눈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성령 안에서 비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시 126:5-6).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농부가 일을 역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고된 일이지만 씨가 뿌려졌을 때 열매를 거둘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며 눈물로 씨앗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상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눈물로 뿌린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을 줄로 믿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상과 미신으로 가득한 이 땅에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눈물로 씨앗을 뿌렸을 때 이 나라와 민족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었습니다. 고 방지일 목사님의 글 가운데 하나를 인용했습니다.

“눈물은 거꾸로 흐릅니다. 눈에서 흘러 하늘에 가 닿습니다. 눈물의 사람이 되십시오. 눈물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당신이 흘린 눈물을 위로와 감사의 병에 담아주십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복음 증거를 위하여,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복한 땅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받아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강권하심

둘째, 성령의 강권하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22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를 성령의 강권하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분명한 사역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한 계획의 사람이었습니다. 도시중심의 선교계획을 세우고, 먼저 회당에 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방문했던 지역을 재차 방문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전도 개척지역도 늘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획적인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여정에는 그가 세운 계획을 뛰어넘거나 갑자기 바꾸시는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사역하기를 원했지만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는 환상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를 유럽으로 인도했습니다. 지중해 동부를 중심으로 사역하던 그를 지중해 서부로 가게 하신 것도 성령님입니다.

다. 여러분, 계획 없이 일하는 것은 성령의 강권하심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일하면서 성령의 강권하심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성령의 강권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을 계획 없는 인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려면 자신의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열려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을 간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강권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가지 않을 수 없는, 가야만 하는 성령의 강권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게 만드는 성령의 강권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권하심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은 우리의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력이 흐려지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을 경험하면 오히려 분별력이 올라갑니다. 판단력이 더 좋아집니다. 성령님이 나를 강권하시되, 선택은 내 의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많은 결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님이 강권하셨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자신은 원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간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여기 와 있다가 아니라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행동하지만, 결정과 선택은 스스로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가지 말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세 번째 단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사명

셋째, 사명입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23~24절).

(13면에 계속)

기획_입양의 날

특별하지 않아서 더 특별한 입양이야기

이명열, 강문숙 부부(일산공동체)가 쌍둥이 부모가 되기까지

5월 11일은 입양의 날이다. '한 가정에 한 명의 아이를 입양하자'는 취지로 2005년 지정됐다.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에는 입양가정 커뮤니티 '제이홈'이 있다. 제이홈은 '제2의 집, 예수님의 품(Jesus Home)'이라는 뜻이다. 입양가정 네트워크 및 입양에 관심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제이홈을 통해 쌍둥이 남아를 입양한 일산공동체 이명열, 강문숙 부부를 만났다. 그들은 한 명도 입양하는 것이 힘든데 어떻게 쌍둥이를 입양하게 됐느냐, 대단하다는 사람들의 반응에 이렇게 대답했다.

“내 자식을 찾은 것뿐이에요. 입양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이명열, 강문숙 부부는 결혼하고 15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입양을 결심했다. 때마침 같은 공동체에 소속된 오창화 집사(제이홈 팀장)가 온누리교회에 입양가정 커뮤니티 '제이홈'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

“아내가 제이홈이 어떤 모임인지 한 번 들어나 보자고 해서 가게 됐어요.”

이명열 집사는 제이홈에서 입양관련 이야기, 경험자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입양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됐다. 아직 부모로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도 발견했다.

“입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법적인 절차 등을 제이홈에서 배웠어요. 우리 부부가 너무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명열, 강문숙 부부는 부모로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정부에서 실시하는 양부모교육을 받으려고 입양기관에 문의했다. 그것이 남들과 조금 다른 만남의 시작이었다.

강빈이와 강휘의 부모가 되다

입양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롭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지, 월수입은 얼마인지, 자녀가 있는지, 아들을 원하는지, 딸을 원하는지, 친자녀가 태어나면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사전조사를 한다. 서류 준비와 심사 과정도 복잡하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입양 의사를 타진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바로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혹 아이를 만나더라도 바로 집으로 데려올 수는 없다. 그런데 이들 부부의 입양과정은 무엇인가 달랐다. 양부모교육 참가 가능여부를 물으려고 입양기관에 문의했는데 “몇 년 만에 쌍둥이 남아가 들어왔는데 그 쌍둥이를 입양하는 것이 어때냐”고 물었다. 마치 그 아이들이 이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만 같았다.

“우리 부부 마음에도 쌍둥이가 벌써 자리 잡고 있었어요. 원래부터 우리 집 아이였던 것처럼요.”

이들 부부는 복잡한 심리검사 과정도 생략할 수 있었다. 입양하기 전에 거치는 까다로운 과정 중에 부모 심리검사가 있는데 이들 부부는 몇 개월 전 그 검사를 이미 마친 상태였다.

입양을 생각하면서 부부문제부터 진단해보자는 의미로 받은 검사였는데, 그 검사가 입양 수속을 밟을 때 유용하게 쓰였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준비시키고,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 심리검사가 굉장히 전문적인 검사라 비용도, 시간도, 검사항목도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 부부는 미리 해뒀기 때문에 입양 절차가 그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그들 부부는 쌍둥이 남아 강빈이와 강휘를 집으로 데려왔다. 이제 6개월 동안의 위탁 과정을 거치고, 법의 인정을 받는 과정만 남았다. 6개월 동안 법원의 가정방문, 면담, 법원 소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도 쉽지는 않다. 이 과정에서 아내 강문숙 성도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법의 까다로움도, 결코 쉬운 면담 질문도 아니었다.

“초반에 강휘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자주 갔어요. 그때마다 문진표를 적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라고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위탁모라고 쓰긴 싫고, 이 아이는 내 아이인데 말이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강빈이와 강휘가 부부의 정식 자녀가 되었다. 많은 절차와 검사, 면담 등을 모두 끝내고 드디어 두 아이의 부모가 되기 직전에 판사가 부부에게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없냐고 물었다. 그때 이들 부부가 이렇게 말했다.

“판사님과 여러 조서관님들이 우리 부부가 이 아이들의 부모가 된 것의 증인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부부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증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식을 찾은 것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강빈이와 강휘를 만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내 아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강빈이와 강휘의 입양과정 이야기를 듣고 나니 부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다. 내 아이를 찾은 것일뿐 입양은 특별한 게 아니라고 했던 말이 이해가 됐다.

입양에 대해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강문숙 성도의 가족들은 크게 반대하지 않고 기뻐했지만 시댁은 반대가 심했다. 남편



강빈, 강휘 쌍둥이 형제를 안고 있는 이명열, 강문숙 성도.

이명열 집사와 시어머니가 크게 부딪혔다. 입양할 거면 인연을 끊겠다는 말까지 오갔다.

“아무래도 부모님 세대는 입양에 대한 의식이 우리 세대와는 다르죠. 걱정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정말 의외였어요. 강빈이와 강휘의 아빠로서 의젓하게 보호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반대하셨을 때 이 아이들의 부모는 바로 나라는 마음이 더 확실해졌어요. 내가 이 아이들의 부모라는 마음가짐이 어른들의 반대에도 초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줬어요.”

지금은 양쪽 부모님들 모두 쌍둥이를 무척 예뻐해 주신다. 가족들의 반대는 그렇게 극복했지만 지인들의 경우는 또 달랐다.

“이웃 주민들이 입양한 아이들을 보더니 어떻게 자기 아이를 버릴 수가 있냐고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아이들이 버려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이 아이들을 놓고 갔겠어요? 누구라도 좋으니 이 아이를 데려다 잘 키워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맡긴 거예요. 이 아이들은 한 번도 버려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였다.

“우리 보고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내 자식을 찾은 것이지 결코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도, 특별한 일도 아니다

사실, 이번 인터뷰가 쉽게 성사된 것이 아니다. 아내 강문숙 성도의 가족 중에 원하지 않는 분이 계셨다. 인터뷰 당일에도 아이들을 입

양한 사실이 보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 아이들이 상처받을 것을 염려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단호했다. 입양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특별한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확고했다. 입양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면서 보도를 흔쾌히 승낙했다. 그러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입양 자체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입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입양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상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들 부부의 소원은 아이들이 커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런 걸 걱정하셨을까?”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 소원이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기자도 많이 반성했다. 기자도 입양은 어렵고,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명열, 강문숙 부부의 담담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저 아이들은 버려진 게 아니라 맡겨졌다”, “저 아이들은 양부모가 배 아파 낳진 않았지만 분명한 친자녀”라는 것을 각인했다.

“강빈아, 강휘야. 나도 너희들이 좋은 부모님을 만난 일의 증인이 될게. 입양한 사실이 더 이상 특별한 사회가 아니었으면 좋겠구나!”

제이홈(입양가정 커뮤니티) 모임 안내

일시: 5월 15일 오후 5시
장소: 서빙고 신관 꿈아이홀
대상: 입양 가정, 입양을 준비하는 가정

핏줄보다 진한 ‘가슴으로 낳은 아이’

입양, 인생의 마침표가 하나님의 쉼표로 바뀌는 사건

입양은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한다. 즉, 생물학적 부모가 양육하기 불가능한 아동들에게 영구적으로 새로운 가정과 부모를 제공해 주는 과정이다. 부모자녀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포함하여 법적,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영원한 친자관계를 맺는 것이다.

나는 입양을 ‘인생의 마침표가 하나님의 쉼표로 바뀌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다. 태어나자마자 친부모와 이별을 하게 된 아기와 불임으로 자녀에 대한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가정이 서로 만나는 것, 그로인해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의 쉼표 같은 일임을 깨닫는 사건이 바로 입양이다.

절망에서 다복한 가정이 되기까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입양과 관련된 대표적 인물이 모세다. 모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이집트 공주의 양자로 자랐다. 당시 유대인 남자 아이가 출생하면 모조리 살해하라는 바로의 명령은 모세의 인생에 마침표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모세가 이집트 왕족으로 살게 되는 쉼표로 사용하셨다.

10명의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하나님 땡큐>의 저자 윤정희 사모는 첫 번째 아기를 입양하기 전에 7년 동안 4번의 유산을 했다. 그녀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입양을 결심했다.

“벅속에 있던 얼굴도 모르는 아이를 잃고 그렇게 마음이 아파 울고 있지? 나는 이 땅에 버려진 수많은 내 아이들로 인해 눈물이 난다.”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 그녀는 간헐성 외사시를 앓고 있는 하선, 선전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하은, 구순열로 태어난 하민, 안짱다리로 태어나 두 번의 큰 수술을 받은 사랑이를 포함한 10명의 자녀를 입양했다.

“크고 작은 아픔을 가지고 아이들이 내 품으로 들어왔고, 울면서 웃으면서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배 아파 낳은 고통보다 더 큰 아픔을 겪으며 한 명 한 명을 가슴으로 품고 주님께 울부짖으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직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만 붙잡고,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다는 강한 믿음으로...”

나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첫 아이 예린이를 낳고 2년 만에 가진 둘째 하늘이를 임신 5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다. 2003년 병원의 권유로 검사를 받고 난 이후 양수가 터져버렸고, 아내는 감염이 되어 40도가 넘는 고열로 입원하게 되었다. 그때 심정은 세상이 다 끝나는 것 같았다. 이럴 순 없다고, 아닐 거라고, 하나님께서 아내와 아이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산모가 위험하다는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안광국 목사 가족 사진.

아이를 인공유산시키는 결정을 했다. 수술실 입구가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긴 터널의 입구 같았다. 의지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차갑게 외면당하는 느낌이 들어 더욱 절망했다. 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얼굴도 본 적 없는 임신 5개월짜리 아이를 내 손으로 포기하고, 하나님과 등지고 말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했다.

“왜 나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가혹한 결정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나요?”

하나님은 우리 부부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다.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욥 3:16-19).

빛도 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간 아이가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에 있다는 깨달음을 주셨다. 나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그러다 우리 부부가 결혼할 때 하나님께 자녀를 입양하겠다고 한 약속이 떠올랐다. 우리 부부는 1년 뒤 보석 같이 예쁜 딸 예은이를 만났고, 2007년 예준이, 2014년 예담이를 만났다. 우리 가정이 2남 2녀라는 다복한 가정으로 거듭났고, 더욱 풍성해졌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야 하는 이유

2015년 한국의 출산율이 1.3명이다. 세계 224개국 중 219위이다. OECD국가 중에서 꼴

찌에 가깝다. 일본은 1.41명, 심지어 북한도 2명이다. 젊은이들이 연애와 결혼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자식을 낳아도 책임질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는 절망이 젊은 세대에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있다. 반면, 영아 유기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에서 3월에 2명씩 영아들이 버려지고 있다. 결혼한 가정들은 한 아이도 책임질 수 없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고, 아이를 이미 가진 미혼모들은 자신의 불확실한 행복을 위해 아이를 버린다.

성경에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한다. 고아를 돌보라고 말씀하시고 고아를 압제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겠다고 하셨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신 14:29).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삯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말 3:5).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첫째, 나 중심적인 사랑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대부분 나 중심적이다. 내 부모, 내 가족, 내 자녀, 내 민족, 내 교회... 나 중심적인 사랑은 때로 나를 변질시키고, 파괴시키기도 한다. 헨리 나우웬은 한때 뉴욕에서 AIDS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 그는 자신이 만난 AIDS 환

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너무나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고 또 동시에 너무나 사랑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사랑이었다.”

이 말의 의미는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 샤다이’의 샤다이(Shaddai)가 어머니의 가슴을 의미하는 샤드(Shad)에서 온 단어인 동시에 우상숭배로 번역되는 쉐딤(Shaddim)도 똑같은 샤드에서 온 것과 같다. 때로는 우리의 사랑이 나를 파괴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중심성의 파괴적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객과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나 중심적인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둘째,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의미이다. 입양을 하고나서 나를 가장 괴롭힌 것은 불안과 두려움이었다. 아이가 나중에 입양된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으면 어쩌지? 나중에 왜 자신을 입양했냐고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면 어떻게 하지? 등 한동안 나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몹시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그러나 2010년 순심방을 하면서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까지 대신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의 두려움은 ‘하나님 역할하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된 것이다. 내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줄 수는 없다. 나는 하나님께 아이들에 관한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기로 했다. 그리고 며칠 뒤 둘째와 셋째에게 입양 사실을 알려주었고, 아이들은 정말 아무런 충격 없이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2년 동안 끔찍 않으며 씨름하던 문제가 눈 녹듯이 녹아버렸다. 그 아이들이 지금은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

셋째, 책임이 곧 축복이다. 하나님은 책임지라고 말씀하신다. 책임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다. 책임을 진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요, 진리다. 4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아내가 고생이 참 많다. 4명 아이들이 내놓는 어마어마한 양의 빨랫감, 식사준비를 할 때마다 음식재료로 싱크대와 식탁이 가득 찬다. 그 외에도 재정적, 감정적, 신체적으로도 책임져야 할 많은 일들을 매일 해내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내고 있는 막중한 책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날마다 부어주신다. 우리 가족은 막내 예담이를 입양하면서 온 가족이 탈 수 있는 큰 차를 구입했다. 우리는 버스전용차선을 합법적으로 달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짙 막힌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선을 달리며 “우리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다”고 생각한다. 나는 오늘도 보석 같은 네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버스전용차선과 같은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 안광국 목사(남양주 온누리교회)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최성완 장로(이수공동체)는 누구보다 가정에 충실한 가장이다. 특유의 친화력과 공감능력을 가졌다. 그는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28년 째 일하고 있고, 아버지학교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아버지학교에서 선정한 '긍정적인 아버지 역할을 하는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영어아버지학교'가 개설된 이후에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지로 달려가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친화력과 경청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최성완 장로를 만났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20점짜리에서 80점짜리 아빠로!

최성완 장로,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아들에게”



최성완 장로(이수공동체)가 활짝 웃고 있다.

최성완 장로는 청렴결백한 공무원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그의 아버지는 고지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성품이 곧았다.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분이셨다. 자녀들에게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존경스러운 분이셨다.

“제 아버지는 예수님 같은 분이셨어요. 지적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셨어요. 항상 웃으시면서 격려해주셨죠.”

최성완 장로는 4남매 중 막내이다. 안 그래도 사랑이 많은 아버지의 내리사랑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받고 자랐다. 대구가 고향인 최 장로는 친구들과 관계도 원만했고, 공부도 잘했다. 의사인 형과 약사인 누나를 따라 의학을 공부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 의과대학을 가는 것이 목표였다. 그런데 의과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공과대학에 진학했다. 원하는 공부가 아니어서 그런지 대학생활이 좀처럼 흥미롭지 않았다. 전공과 적성이 맞지 않아 방향을

했다. 진로를 고민하던 중에 군대를 갔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는 1979년 여름, 대구에 있는 공군부대가 톨릭 군종병으로 입대했다. 군종병이었지만 신앙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을 다녔던 적 말고는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다. 부모님은 무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불교신자였다. 그에게 신앙이 있을 리 없었다. 그러던 그가 군종병으로 섬기면서 조금씩 신앙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성당과 교회가 같은 장소를 사용하는 곳에서 근무했다. 주일 아침이면 기독교 예배를 준비했고, 오후에는 가톨릭의 미사를 준비했다. 그의 성실한 모습을 지켜본 신부님이 신학교에 입학해 신부가 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했다. 진로를 고민하던 그가 아버지께 신부님의 제안을 털어냈다. 아들의 이야기를 한참동안 들던 아버지가 조언하셨다.

“아들아, 신부는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일이지만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구나. 고독하고 먼 길을 갈 수 있겠니?”

최 장로는 다시 진로를 고민했다. 그는 군종병으로 근무하면서 신부님이 한국인 조종사, 정비사 자녀들과 함께하는 성경공부의 통역도 도왔다.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동아리에서 활동한 덕분에 영어회화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그 신부님이 심리학을 전공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는 또 다시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들아, 심리학은 하나의 순수학문이란단다. 그런데 너의 성향과 비전을 고려한다면 심리학을 공부하는 것은 다시 고민해 보는 것이 좋겠구나.”

아버지는 아들 스스로 답을 찾기를 원했다. 아버지의 조언을 듣고 세계지도를 펼쳤다. 그리고 생각했다.

“신이 나를 태어나게 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너무 작는데 더 넓은 세계로 가자. 그곳이라면 내가 할 일이 많지 않을까?”

그때 떠오른 학문이 언론학이다. 언론학을 전공해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소식을 전하는 기자가 되고 싶었다.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즈음 근무하던 부대에서 미군과 국군이 합동 군사작전 훈련을 했다. 그때 미국에서 군종 목사로 함께 왔다. 그 군종 목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학을 제안했다. 그 군종 목사의 도움으로 미국 서부 네바다주(州)에 위치한 네바다대학교(University of Nevada-Reno)에 입학했다.

그는 1983년부터 1988년까지 미국에서 공부했다.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할 즈음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후배로부터 연락이 왔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언론학 전공자를 뽑고 있는데 신청을 해보라는 권유였다. 가난한 유학생이던 그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밀저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응시했는데 그 일이 희망이 되었다. 합격통보를 받은 것. 이듬해 한국으로 건너와 1989년부터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관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매일 아침 신문과 뉴스를 통해 미국 정책과 관련된 보도가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정확한 소통을 담당하는 일도 주된 업무다.

돌이켜 보면 하나부터 끝까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의과대학 낙방, 아버지와 의 대화, 진로 고민, 새로운 꿈, 군종 목사와의 만남, 언론학 공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하

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었다면 설명할 수 없다.

아들과 함께 아버지학교를 섬기며

최성완 장로는 신우회 활동에도 열심이다. 신우회 활동을 하면서 신앙이 더 깊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1996년 온누리교회에 왔다. 출장을 다녀왔는데 아내가 아버지학교에 참가신청을 해 둔 일이 계기가 되었다.

“제가 아버지학교에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좋은 아버지라 자부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학교에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버지가 가정에서 순기능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데 아버지학교만 한 것이 없더군요.”

최성완 장로는 아버지로서 80점 정도는 된다고 자부했었다. 그런 그가 아버지학교에 참가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고작 20점밖에 안 되는 아버지라는 것을 실감했다. 좋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긍정적인 영향으로 상처 없이 자랐지만 일에만 몰두하다보니 정작 자신은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2007년에는 아들과 함께 인도에서 열린 ‘영어아버지학교’에 참석했다. 그는 강사로, 아들은 스태프로 참석했다. 그 이후에도 아들과 함께 아버지학교를 섬겼다. 지금 그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20점짜리 아빠에서 진짜 80점짜리 아빠가 됐다. 현재 그는 이수공동체 대표 장로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같은 공동체인 우상근 장로(이수공동체)는 “최 장로님이 공동체를 섬기면서 3040 젊은 리더십이 중심이 되어 열기가 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이수공동체 지체들이나 리더십들에게 본이 되는 장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아들이 보낸 편지

안녕하세요. 평소에 쑥스러워 아버지께 편지를 잘 쓰지 않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아버지와 어머니께 편지를 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버지, 저를 믿고 외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늘 “우리 아들은 뭘 해도 잘할 수 있을 거야!”라고 격려해주셨습니다. 믿음을 심어주신 덕분에 자신

감이 생겨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길러주신 단단한 믿음의 뿌리 덕분에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응원과 기도로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타지에서 생활해보니, 아버지의 존재가 더 커 보입니다. 저도 장차 한 가정을 꾸리고 나갈 남자로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아버지께

“아버지는 이 나이에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책임감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아버지를 더욱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타지에서 생활하는데 방해 될 것 같아 일부러 연락도 자주 안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제가 더 자주 연락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들에게 지속적으로 흘려주신 믿음과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보답하겠습니다.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 아들 최익석 올림



정말 좋은 쉼터이자 놀이터 ‘양지 온누리교회’

동네 아이들부터 선교사 자녀들까지 “교회가 최고”

양지 온누리교회는 동네 아이들은 물론 선교사 자녀들에게도 정말 좋은 쉼터이자 놀이터이다. 또한 양지 온누리교회는 가정이 행복한 교회다. 부모가 행복하고, 자녀들이 행복하다. 선교사 부모뿐만 아니라 선교사 자녀들도 행복하다. 특히 선교사 자녀들에게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양지 온누리교회와 함께 있는 Act29 비전빌리지가 선교사 훈련기관이다보니 선교사 자녀들이 많기 때문이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안식도 한다. 선교사 자녀들도 부모를 따라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수 년 동안 양지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부모와 함께 선교지로 향할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고, 신앙도 키우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어린이 운동회, 과자먹기 코너에서.

지난 1일 양지 온누리교회를 찾았다. 교회 주변에는 꽃과 녹음이 지천이다. 전원적이고 가정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봄, 아니 사계절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다. 예배드리러 온 가족들이 산책을 하고, 꽃구경을 하는 풍경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유독 뛰어노는 아이들이 많았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참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었다.

유럽, 윤서 자매와 한나, 한일 남매가 함께 트램펄린을 타고 있었다. 유럽이와 윤서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나, 한일이 남매를 교회에 데려온 것이다. 한나와 한일이 “교

회가 이렇게 좋은 곳인지 몰랐다”며 까르르 웃었다. 교회 주차장에서는 지역주민 김관호 씨가 두 아들 준한, 준호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그는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이곳을 자주 찾는다”고 했다. “아이들과 함께 놀기에 양지 온누리교회 만큼 좋은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이들도 “또래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교회가 좋다”고 했다.

안타깝게도 양지 온누리교회 인근에는 차세대가 없는 교회가 많다. 어린이주일 행사는 고사하고, 주일학교도 운영하지 못하는 교회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양지 온누리교회에서 아

이들을 위한 행사가 열리면 지역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찾아온다. 양지 온누리교회가 지역 어린이들의 만남의 장이다.

기자가 찾아 간 날은 어린이주일을 맞아 양지 온누리교회가 개최한 행사가 한창이었다.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과 운동회가 열렸는데 지역 아이들이 많이 참석했다. 양지 온누리교회 차세대 담당 전광석 전도사는 “교회에서 차세대를 위한 행사가 열리면 지역 아이들이 많이 온다”면서 “그 아이들이 교회가 재미있고,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이날 종일 취재를 하는 동안 “안 돼”, “뛰지 마”라는 말을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다. 그만큼 양지 온누리교회는 안전하고, 자유로웠다. 아이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될까. 아이들이 양지 온누리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아이들에게 양지 온누리교회는 즐거운 곳, 재미있는 곳, 또 오고 싶은 곳이다.

선교사 자녀들의 어린이날

선교사 자녀들은 어린이날을 어떻게 보낼까? 두란노해외선교회 소속 선교사 김주의, 김혜연 부부는 첫째 민서(12살)가 태어난 지 백일 되었을 때 몽골 울란바토르로 선교를 갔다. 몽골에서 사역하면서 둘째 민하(10살)와

셋째 민지(7살)가, 지난해 한국에서 막내 민유(7개월)가 태어났다. 몽골에서 아이들은 매년 두 번씩 어린이날을 보냈다. 몽골의 어린이날은 6월 1일이고, 온누리교회 공동체에서 보내주는 선물은 한국의 어린이날인 5월 5일에 맞춰 도착했기 때문이다.

올해 9살인 최사프란, 최사론 쌍둥이 자매도 생후 백일 때 부모를 따라 키르기스스탄으로 선교를 갔다. 그들의 아버지 최명현 선교사는 1999년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를 했는데 현지에서 아내 삼시아 선교사를 만나 2002년 8월 결혼했다. 부부가 6년 반 동안의 우즈베키스탄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서 다음 선교를 준비하던 2008년도에 최사프란, 최사론 자매가 태어났다. 그들 가족의 선교지인 키르기스스탄에는 어린이날이 없었다. 그 대신 키르기스스탄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모든 성도들이 매주 차세대들을 축복해줬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매 주일이 어린이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부여하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기자가 만난 두 선교사는 “자녀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양지 온누리교회 주일학교의 도움이 참 컸다”고 입을 모았다. 그만큼 양지 온누리교회가 선교사 자녀들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다. 선교사 자녀들이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목회칼럼

한 시골교회 목사의 차세대 끌어안기



도육환 목사
(양지 온누리교회)

한국교회 미래를 염려하게 하는 여러 지표를 대한 것이 하나 둘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이곳 양지 온누리교회 주변에도 차세대를 운영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다. 내가 선교사로 헌신한 90년대 초기만 해도 한국교회 기독교인의 절반 가까운 숫자가 주일학교 학생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25%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차세대가 없다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교현장과 선교본부 여러 사역을 두루 섬겨 온지 24년, 수도권 외곽 작은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한국교회의 위기를 조금이나마 실감하게 되었다. 여전히 계속해야 할 ‘동 시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횡적 선교’와 그에 못지않게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다음 세대를 위한 종적 선교’의 필요를 절감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 세대에 누렸던 축복과 부흥을 다음 세대들도 누리게 하고 싶다. 그런 작은 소망으로 시작한 것이 ‘가족주일’이다.

가족주일은 매월 네 번째 주일로, 성인 성도와 차세대 전체가 함께 모여 예배한다. 찬양도 전 세대가 함께 부를 수 있는 곡으로 선곡한다. 율동이 있는 차세대 찬양도 부르지만, 아이들도 성인예배의 찬양을 함께 부르고 배운다. 세대를 뛰어 넘는 예배를 공유하고 서로의 예배를 이해하는 시간이다. 설교 전에 함께 예배에 온 모든 차세대를 강단 앞으로 초대한다. 부모님이 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모든 성도들이 오른 손을 들어 축복하며 차세대를 축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교사들을 위한 기도도 잊지 않는다. 이를 통해 온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에 복과 은혜를 전수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래서인지 우리 아이들은 담당 목사가 누구인지 잘 안다. 나는 모든 아이들의 얼굴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누가 누구의 아이인지 열심히 줄기치 하며 아이들을 알리고 애를 쓴다. 아이들은 목사인 나를 포함해서 어른들을 만나면 예외 없이 반갑게 인사한다. 가족주일의 영성이 흘러가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래서인지 우리 교회는 차세대가 많은 교회이다. 도농지역에 위치한 일반 교회의 구성원과는 달리 양지 온누리교회에는 30대 후반, 40대 성도가 가장 많은 이유도 차세대 때문이라 생각한다.

양지 온누리교회는 TIM선교본부와 선교훈련센터(OWMC)가 함께 위치하고 있는 이유로 ‘선교사 자녀(Missionary Kids)들도 함께 하고 있다. 이미 선교지에서 성장하고 돌아온 아이들과 훈련을 마치고 부모님을 따라 현장으로 나갈 아이들도 있다. 선교사 부모의 가장 큰 염려가 자녀교육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자신의 헌신을 디딤돌로 삼아 비전의 날개를 펴

고 열방의 리더십으로 마음껏 날아오르도록 만들어 주고 싶다는 것이 한결같은 소망일 것이다. 그들을 위해 TIM과 함께 홈스쿨(All Nations Home School Academy)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

선교지의 교육만 열악하겠는가? 진화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오늘날의 교육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싶다. 무너져 가는 도덕성, 성경체감의 혼란, 이기적인 생존경쟁, 왜곡된 역사관 등의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공교육을 보면서 성경적 자녀양육을 회복해야 할 절대적 필요를 절감한다. 교회가 교육을 회복해야 한다. 성경적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진짜 행복하게 살게 할 수 있다. 성경적 가정을 회복해야 진정으로 행복한 사회가 세워질 수 있다. 홈스쿨이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왜 이리 늦게 깨닫게 되었을까. 찬란한 양지의 봄을 누리면서도 마음 한편의 안쓰러움이 커지는 이유이다.

한터는 ‘쉼터’, 하나공동체는 ‘친구’

한국생활 적응 돕고, 통일한국 시대 주역될 탈북자 양육

우리나라에 탈북자 2만9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지금도 매월 120~130명의 탈북자가 오고 있다. 탈북자들은 통일부 산하기관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한국사회를 배운다. 그러나 한국생활에서 마주한 경제적,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온누리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한터와 하나공동체는 심신이 지친 탈북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쉼을 주고 있다. 탈북자들이 하루 빨리 한국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무엇보다 통일한국 시대를 대비해 탈북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하나공동체 예배 중 서로를 축복해 주고 있다.

한터는 2005년 주선에 권사(전 장신대 명예교수)가 양재동에 설립한 ‘탈북자종합회관’으로 시작했다. 주선에 권사는 평양출신 실향민이다. 그녀는 교회가 탈북자들을 도와야 한다는 일념으로 탈북자종합회관을 개관했다. 당시 북한선교에 관심이 많았던 하용조 목사가 영적스승인 주선에 권사의 요청으로 탈북자종합회관을 지원하게 됐다. 탈북자종합회관은 방황하는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양재동에 있는 탈북자종합회관과 탈북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과 거리가 멀었던 것.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0년 탈북자종합회관을 탈북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강서구 등촌동으로 이전했다. 그러면서 명칭을 ‘한터’로 변경했다. 한터는 ‘남북한 모두 하나의 터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한터는 2014년부터 사회선교본부 산하 기관으로 소속되어 여러 사역을 실시하고 있다. 하나원예배사역, 나들이사역, 한터여성공방사역, 예꿈 미래도서관, 청소년 및 청년사역, 한국에서의 정착지원, 중국내 탈북 여성 지원이 바로 그것이다.

하나원예배사역은 하나원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지원하는 것이다.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지내는 탈북자들이 대상이다. 나들이 사역은 통일부 산하기관 하나원을 수료한 탈북자들이 대상이다. 매월 하나원을 수료한 탈북자

들을 2주내에 온누리교회에 초대한다. 교회소개와 함께 서울 중심지를 다니면서 한국문화도 소개하고 있다. 이들이 남한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도 함께 나누고 있다.

한터여성공방사역은 한국사회 정착의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탈북여성들을 위한 사역이다.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탈북자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제공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속마음을 나누고, 치유되도록 돕는 사역이다. 한터여성공방사역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한터공동체 예배에 나온 탈북자들이 꽤 된다. 비누, 양초, 액세서리 등을 손수 제작하고 있다.

예꿈 미래도서관은 탈북자들의 초등학교 자녀들을 위한 곳이다. 재미있는 책읽기, 교과서 읽기, 자신 있게 말하기, 듣기, 재미있는 성품 교실, 한국문화 알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탈북자 자녀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꿈을 찾도록 돕고 있다.

청소년 및 청년사역은 탈북자 청소년과 청년들이 미래 리더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지원을 해주는 사역이다. 자원봉사자가 일대일로 학습지도를 해준다. 한터는 이외에도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도록 물질적인 지원도 한다. 탈북자들이 하나원을 수료하고 나면 임대아파트와 최소한의 집기류만 제공을 받는다. 가전제품을 비롯한 기본적인 생활용품이 필요하다. 한터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파악해 필요한 물품을 후원받아 전달하고 있다.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탈북 여성들을 지원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가난과 질병, 복송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국내 탈북 여성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후원을 하고 있다.

황능준 목사(한터)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먼저 탈북자를 품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북자의 복음화 꿈꾼다 ‘하나공동체’

하나공동체는 남북한이 하나로 어우러져 예배드리는 공동체다. 1996년 만들어진 북한중보기도모임에서 남북한 크리스천들이 함께 예배드리다 2003년 하나공동체로 성장했다. 하나공동체의 비전은 탈북자의 복음화다. 통일이 되었을 때 그들이 북한선교에 주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공동체에는 20~30대 젊은 탈북자들이 많다. 용인, 김포, 남양주, 파주 등에서 버스를 1~2시간 타고 오는 탈북자들도 있다. 하나공동체 민경일 집사는 “탈북자들이 힘들어하면 지역에 상관 없이 달려가 위로했더니 이제는 그들이 예배드리려고 멀리서부터 찾아온다”고 말했다.

하나공동체는 김상수 목사가 2014년부터 담당하고 있다. 김 목사는 하나공동체에 양육체제를 도입했다. 탈북자들을 위한 성경공부 OBC(Onnuri Bible College)와 예수제자학교(JDS)를 시작했다. 2015년부터는 일대일 제자양육도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탈북자들을 일대일로 만나 그들의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공동체는 탈북자들을 위한 대안학교 지원사역, 공부방사역, 채용 지원사역, 심리치료 및 상담사역 등을 하고 있다.

대안학교 지원사역은 탈북자들을 섬기고 있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기독교 대안학교를 후원하는 것이다. 공부방 사역은 커피숍이나 식당에서 탈북자와 만난 학습을 도와주고 있다. J4U와 W공동체의 탈북청소년공부방사역팀이 섬기고 있다. 채용 지원사역은 30대 이상 탈북자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있다. 심리치료 및 상담사역은 탈북자들의 상처를 보듬고, 그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나공동체는 탈북자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고 있다.

탈북자 간증



이명철 성도
(한터공동체)

나는 2004년 10월 1일에 한국에 왔다. 한국에 오기까지 목숨 걸고 국경을 넘어야 했다. 나는 1990년대 중국에서 일하며 살고 있었다. 중국에서 일한 지 7년째 되던 해 우연히 한국에 가면 살기 좋다는 말을 듣게 됐다. 2002년 한국에 갈 꿈을 꾸고 준비를 했다. 그런데 그 꿈은 허무하게 끝났다. 공항에서 북한군에게 잡힌 것이다. 그 일로 2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다. 그때 내게 가장 큰 힘을 준 것은 조선족 교회에서 들었던 ‘나 어디에 있든지’라는 찬양이었다. 찬양 가사를 읊조리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교도소에서 나오고 다시 한국으로 갈 결심을 하고

중국으로 갔다. 그런데 또 무산 되었다. 함께 탈북했던 21명 중 3명이 잡힌 것이었다. 나머지는 무참히 폭행을 당하고 흩어졌다. 계속되는 실패에도 한국에 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 다시 뜻 있는 사람을 모았다. 남자 5명과 여자 4명이 모였다. 한국 목사님께 2천 원씩 빌려 차비를 마련해 공항까지 기차를 타고 갔다. 공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산으로 갔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 있는 초소를 피할 길이 없었다. 그곳을 넘어야만 미안마로 갈 수 있었다. 최대한 들리지 않기 위해 두 명씩 짝을 지어 이동했다. 1시간 후에 약속된 장소에 오지 않으면 잡힌 것으로 알겠다고 서로 이야기했다. 다행히 모두 무사히 왔고, 미안마에 갈 수 있었다. 미안마에서 산길을 걸어 18일 만에 태국 땅을 밟았다. 그 때 태국의 국가이자 찬송가인 ‘천부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찬양이 내 마음을

찬양이 나의 가장 큰 힘

위로했다. 당시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내가 가는 곳마다 찬송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태국에서 한국으로 왔다. 막상 한국에 왔더니 말이 달라서 또 힘들었다. 그때 같은 처지에 있었던 탈북여성을 만나 재혼했다.

한터는 아내를 통해 알게 됐다. 이훈 목사님이 한터를 섬길 때 아내가 한터여성공방을 다녔다. 어느 날 아내가 내게 청소를 배우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한터에서 청소를 배웠고, 그 일을 계기로 한터에 계속 나오게 됐다. 한터에 온 지 1년 뒤에 예수제자학교(JDS)를 시작했다. 그 해 터키 아웃리치를 갔는데 잊을 수가 없다. 터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했던 유적지를 갔는데 그 유적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이후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었다. 운전할

때도 입에서 찬양이 저절로 흘러 나왔다. 무엇보다 내 마음과 가정에 평안이 찾아왔다. 내 마음이 평안하니 자식들도 평안함을 가지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 자영업자를 하고 있다. 용인과 서울 시내에 새로 입주한 아파트와 사무실을 청소하고 있다.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일을 하면서 인내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다. 나는 탈북자들에게 “돈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권하고 싶다. 또 청소를 배워볼 것을 권한다. 힘들이지 않고 얻는 것은 없다. 나는 그것을 인내라고 생각한다. 청소를 끝내면 사람들은 내게 고맙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한다. 지금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

+ 세상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전파하는 사람들 2

토기장이 출판사 대표, 조애신 집사

꽃보다 누나, 돌직구 멘토 “인생의 시간낭비를 줄여라”

토기장이 출판사 조애신 대표는 2000년 12월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를 기획·출판하면서 출판계에 발을 디뎠다. 저자 레나 마리아의 간증을 다룬 이 책을 출판하면서 기독교출판계의 유명인사가 되었다. 조애신 대표는 13년 동안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요셉공동체 멘토를 거쳐 현재 여호수아공동체 멘토로도 활약하고 있다. 청년들의 엄마이자, 누나가 되어주고 있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주님은 나의 최고봉>, <다윗의 장막>, <거룩의 재발견>, <하나님의 관점>, <예수를 위한 바보> 등 토기장이 출판사 입구에는 다년간 베스트·스테디셀러로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책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조애신 대표를 만나러 토기장이 출판사를 찾아갔다가 그녀가 일하는 사무실을 보고 깜짝 놀랐다. 수천여권의 서적들이 가득한 소박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토기장이’라는 이름은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는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에서 인용했어요. ‘생명 있는 책만 만듭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 출판사의 성격을 단번에 알아챈 수 있었다. 토기장이 출판사는 청소년들을 위한 성경공부시리즈 <토기장이>의 출간을 위해 세워졌다. 주입식 교재가 아닌 대화식으로 풀어가는 큐티식 교재 <토기장이>시리즈는 약 200만 부 이상 판매되며 널리 인정을 받았다. 지금은 절기별 중고등부 성경공부교재 <토티시리즈>가 개정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

다. 교재 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책을 만드는 것이 그녀의 비전이다. 작년 말에 출간한 <청소년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 바로 그 비전의 일환이었다. 기독교출판인들은 좋은 책을 제공해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녀가 배운 노하우

조애신 대표의 20대는 정말 치열했다. 대학 시절 사회과학 서적에 몰두했고, 학생운동에 깊이 관여했다. 그녀는 인생의 황금시절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그러나 대학 졸업 후 다시 하나님을 찾았고, 곧바로 작은 교회에 찾아가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94년에 지인의 소개로 온누리교회에 왔다. 추운 겨울이었는데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소리가 그녀의 심금을 울렸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노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라!”

조애신 대표는 그때 그 찬양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다고 했다. 그녀는 그렇게 하나님을 인



지난 2일, 토기장이 출판사 조애신 대표를 만났다.

격적으로 만났다. 1998년 온누리교회에 정식 등록하고 파워웨이브(중고등부)교사로 섬겼다. 그때 가르친 제자들이 현재 여호수아공동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지 7년 만에 하용조 목사의 가르침대로 작은 교회로 떠나 일대일 제자양육을 했다. 2004년, 당시 요셉공동체 담임이던 이상준 목사가 청년부 멘토로 섬겨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그녀는 매주 청년들과 순모임을 하며 깊은 교제를 나눴다. 주중에도 그들을 만나 상담하고 중보 하는 것이 그녀의 멘토링 비결이다. 2009년에는 여호수아공동체 멘토로 자리를 옮겼고, 지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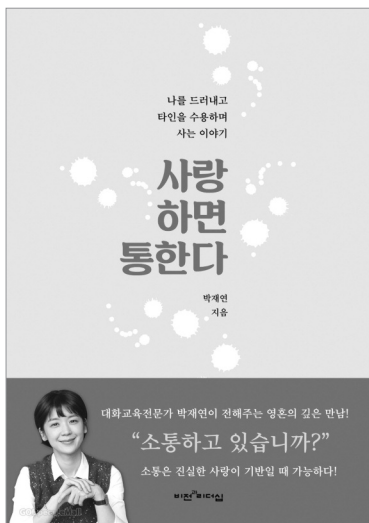
지 에이스(ACE)그룹 멘토로 활약하고 있다. 많은 청년들이 그녀에게 ‘꽃보다 누나, 돌직구 멘토’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그만큼 청년들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대단하다. 덕분에 그녀에게 친구 같은 청년들이 많다. 그녀가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다.

“어떤 상황에도 우울해하지 말고, 마음을 잘 지키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잘 관리하려면 기도와 말씀 묵상,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인생의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제가 배운 노하우입니다.”

기고

관계와 소통의 변화를 위하여

<사랑하면 통한다>를 읽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공동체를 허락하셨다. 우리는 가족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한다. 또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기도 한다. 가정의 달 5월은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5월은 기

쁨과 감사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는 경우가 있다.

‘조하리의 창’ 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4가지 영역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 첫째, 나도 알고 상대도 아는 나의 모습, 둘째, 나만 알고 있는 나의 모습, 셋째, 나는 모르고 타인은 아는 나의 모습, 넷째, 하나님만 아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이 네 가지 모습이 상대와 소통할 때도 다양한 인과관계를 형성한다. 또 가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사랑과 갈등, 이해와 분노가 교차하는 가족의 역동성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므로 가족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자 때로는 고통이 되기도 한다.

“우리의 관계가 미래로 나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책임지고, 내가 이 감정 뒤에 필요로 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연결하고, 상대에게 표현하는 것이다.”

<사랑하면 통한다>의 저자 박재연 소장(대화교육 강사)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서 한 말이다. 자기 자신을 만나는 일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으로 어렵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면 사회 속에서 무시되고, 도태될 것이라는 환경의 압박이 엄습해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의 압박은 가정 안에서도 작용한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회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압박을 주는 것이다. 이때 자녀들은 스스로의 감정을 숨긴다. 내면의 욕구를 감추거나 참는다. 성경에서 절제는 사랑을 위한 수고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어느새 절제의 정의가 왜곡되어 성공을 위한 절제로 바뀌어가고 있다.

가정의 사랑이야기는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아름다운 역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서로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멀리하는 언어의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판단하고, 비난하고, 미래를 강요한다. 그러면서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한다. 이것은 일방적인 대화 패턴일 뿐이다.

“우리를 자극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반응하기까지 시간이 있다.”

<사랑하면 통한다>의 저자는 <죽음의 수용

소에서> 저자 빅터 프랭클의 말을 인용했다.

“이 시간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그 시간 속에 일어난 나의 감정은 무엇인지, 그 감정이 일어난 나의 진짜 필요와 욕구가 무엇인지, 상대의 감정과 진짜 욕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한다. 여기서부터 관계와 소통의 변화가 시작된다.”

이 책은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았다. 저자가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바라보려는 연습과 훈련의 흔적이 엿보인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것부터 그보다 더 깊은 내면의 필요를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준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자신과 가족을 돌아보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김성욱 목사
(서빙고 차세대)

서빙고 목회행정실 친절 캠페인 실시

“더욱 열심히, 더욱 친절하게 섬길 것” 약속



친절교육에 참여한 목회행정실 간사들.

서빙고 온누리교회 목회행정실이 친절 캠페인을 시작했다. 서빙고 행정실을 시작으로 양재 온누리교회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친절 캠페인은 성도와 교역자들 더욱 친절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서빙고 목회행정실은 매주 예배

를 드리고 난 뒤 30분을 집중응대 시간으로 정하고 성도들과 교역자들에게 더욱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매주 수요일에는 ‘공감소통 연구소’ 박연희 대표로부터 교육을 받는다. 지난 4일 박연희 대표가 미소와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기, 인사 기본기 다지기를 주제로 첫 강의했다.

이준호 목사(목회행정)는 “서빙고 목회행정실은 항상 좋은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고, 김경렬 총괄간사는 “이번 친절 캠페인을 계기로 더욱 잘 섬기는 간사공동체를 가꾸겠다”고 밝혔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용인 온누리요양센터 증축 및 개관 10주년 예배에서 케이크 커팅을 하고있다.

온누리요양센터 10주년 감사예배

박종길 목사, 조항진 장로, 정호옥 목사 등 참석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기관 온누리요양센터가 지난 3일 증축 및 개관 10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감사예배에는 박종길 목사, 조항진 장로를 비롯한 온누리교회 리더십과 온누리복지재단 상임이사 정호옥 목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박종길牧사는 “끓주리고 메마른 땅을 에덴동산으로 바꿔주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온누리요양센터에서 생활하시는 모든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축복했다.

온누리요양센터 박금봉 원장은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아침과 감사한 저녁을 선물하는 온누리요양센터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6년 5월 1일 개관한 온누리요양센터는 2009년 ‘나눔’을 준공했고, 지난해 12월에는 가동과 나눔을 연결해 ‘다움’을 준공했다. 지난해 용인시에서 실시한 장기요양원 평가에서 최우수기관(A등급)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김영선 기자

아트비전 5월 소품전

온누리 미술인선교회 아트비전이 서빙고 온누리교회 1층 카페에서 소품전을 개최하고 있다. ‘함께, Together’를 주제로 이달 말까지

계속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16명의 크리스천 작가들이 참여했다.

아트비전 측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따라 가정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작품으로 표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 판매 수익은 사회선교부에 기증할 예정이다.

문의: 황혜성 팀장 010-4876-2354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29기 단기선교사 훈련생(TP) 모집

단기선교사훈련학교(Turning Point)에서 5월 29일까지 29기 훈련생을 모집한다. 훈련은 6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 4주 동안 진행된다. 합숙훈련이다.

지원 자격은 온누리교회 공동체

에서 1년 이상 활동하고, 선교지에서 1~2년 동안 사역하기 원하는 성도다. 건강한 선교단체에서 단기선교사 훈련을 위탁 받은 성도도 지원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 Acts29 비전빌리지 홈페이지

(www.visionvillage.org)에서 하거나 우편접수를 하면 된다.

훈련비용은 1인당 50만 원이다. 자녀와 함께 입소한 훈련생은 24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은 1인당 14만원, 취학아동(중학생까지)은 25만원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문의: 031-331-8182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우울증과 조울병 극복 세미나

한마음정신회복예배에서 6월 11일과 18일에 ‘우울증과 조울병 극복하기’ 세미나를 연다.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다.

오는 6월 11일에는 우울증과 조울병 특징과 차이, 가족력, 신체 증상과의 관계, 우울증과 조울병 환

자가 만나는 주요 이슈에 대해 남윤영 전문의(세계자살예방학회 학술위원)가 강의한다.

6월 18일은 외상(trauma), 상실과 애도, 정신치료, 수치심, 죄책감 등 다양한 감정을 이해하고 다루는 법에 대해 장순우 전문의(한국정신분석학회 정회원)가 강의한

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kr)에서 하면 된다. 6월 3일까지 선착순 200명을 모집한다. 회비는 4만 원. 사전에 접수하거나 부부나 가족이 함께 등록하면 회비를 할인해 준다.

문의: 고경아 집사 010-3093-1753

최혜경 권사 010-3792-0071

/ 김미림 기자

이혼자 행복학교 세미나 개최

27기 이혼자행복학교(DRS)가 5월 21일부터 6월 18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혼자 행복학교 세미나에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까?’(황혜리 교수), ‘자아정체성’(손정훈 목사), ‘기쁨의 회복’(전정우 전도사), ‘자아상 회복’(임항재 목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훈 목사)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간다. 회복 간증 및 자녀 돌봄 프로

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회비는 10만원.

계좌: 573-810032-41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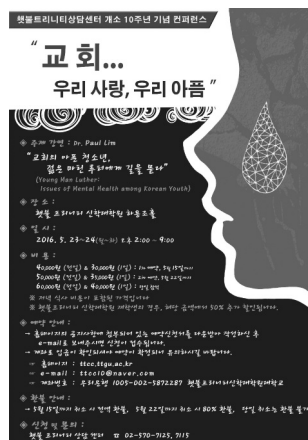
(하나은행)

문의: 김재영 팀장 010-2539-5665

나지원 총무 010-3489-2080

/ 김미림 기자

햇불트리니티상담센터 개소 10주년 기념 컨퍼런스



햇불트리니티상담센터 개소 10주년 기념 컨퍼런스가 5월 23일과 24일 양재 온누리교회 하용조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한국교회와 자녀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다룬다. Dr. Paul C. H. Lim 교수가 ‘교회의 아픈 청소년, 젊은 마틴 루터에게 길을 묻다’를 주제로 강의한다.

김남준 목사(열린교회), 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 최영민 교수(인제대학교), 김용태 교수(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 최은영 교수(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의 강의로 이어진다.

15일까지 사전등록하면 이를 참석 4만원, 하루 참석은 3만원으로 회비를 할인해 준다. 참가신청은 전화(02-570-7115, 7125)로 전화하면 된다. 자료집과 저녁식사가 제공된다.

문의: 02-570-7115, 7125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오카야마 기 · 도 · 제 · 목

- 5월9일(월) 러브소나타 오카야마 집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도록
- 5월10일(화) 실행위원들이 지혜와 영혼구원의 열정을 갖고 연합하도록
- 5월11일(수) 보혈로 덮여주셔서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 5월12일(목) 이재훈 담임목사님을 붙들어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 5월13일(금) 모든 출연진, 스태프, 봉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 5월14일(토) 전도대상자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 5월15일(주일) 부흥의 물결이 일본 전역과 차세대들에게 이어지기를

■ 이혼자행복학교(DRS) 수료 간증



/ 정연미 자매(이혼자행복학교 25기 수료자)

모태신앙으로 자리왔지만 참 신앙을 깨닫지 못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부모님의 반대에도 핑크빛 결혼생활을 꿈꾸며 강행했다.

2005년 신앙이 없는 남편과 결혼에 골인하면서 신혼생활을 즐겼다. 교회에 빠지는 일이 잦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결혼생활이 세상의 가치를 우선으로 두면서 문제가 생겼다. 부부 사이가 점차 소원해졌다.

남편은 잦은 술자리와 야근, 외박을 했고 나는 서운함과 외로움이 커졌지만 꾀웃하게 버텼다. 좋은 아내인 척, 모든 것을 이해하는 척

버티면서 먹는 것으로, 미국 드라마 보는 것으로 외로움을 달랬다. 부부관계를 개선하려고 애썼고, 아이를 낳기를 원했지만 이것마저도 쉽지 않았다. 남편은 아이를 짐으로 생각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다. 결국 우리 부부는 각방을 쓰면서 4년 동안 쇼윈도 부부로 지냈다. 빠졌던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서 지내다 결혼생활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그것이 2014년 11월이다.

해방감과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혼자 지내는 생활을 시작했는데 또 다시 외로움, 죄책감, 무기력감, 우울감이 밀려왔다. 너무 쉽게 이혼한 것은 아닌지를 생각했다.

친구의 권유로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하나님은 특별새벽기도회에서 나를 만나주셨다.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나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을 주셨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했던 내가 선배부부의 안내로 온누리교회에 오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그러면서 가정사역과 회복사역에 대해 알게 되었다. 어느 날 홈페이지에서 이혼자행복학교(DRS)에 참가신청을 했다. 갈급한 마음에 신청했지만 막상 이혼자행복학교에 가는 날이 다가올수록 두려움과 창피한 마음이 들어 망설였다. 그러나 섬김이 한 명, 한 명이 나와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느끼고 안도감이 생겼다. 세상의 비판과 사람들의 시선으로 위축되었던 나에게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왔다.

이혼자행복학교 첫째 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 배웠다. 그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나를 사랑으로 택하신 주님의 은혜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둘째 주 강의에서 들은 “우리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라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다. 회복과 참된 기쁨의 여정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게 되었다.

수료하고 난 이후에는 토요 정기에배를 드

리고 있다. 나를 알아가고, 회복의 여정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대로의 나를 발견했다. 결혼도, 전남편도 나의 우상이었고, 스스로 좋은 역할만 고집하며 그를 비난했던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듯이 그와 나를 용서하면서 이제는 전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나는 이혼자행복학교를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안에서 회복된 나를 만나고 있다. 산산조각 부서진 내 삶과 꿈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시작이었고, 축복이었음을 고백한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실수, 아픔으로 얼룩진 조각들을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주시리라 믿는다.

내가 온전히 기대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깊이 깨달았다. 내 삶을 기경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함을 기대한다.

■ 아트비전(온누리교회 미술인 모임) 작가 간증



/ 이남희 성도(아트비전)

하나님의 작은 기적

나는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조용히 앉아서 스케치북을 채워나가면서 나의 꿈도 채워나갔다. 모네의 ‘수련 연작’을 보면서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서 주체할 수 없었고, 고흐가 좋아서 암스테르담을 여러 번 방문하기도 했었다.

나는 인상과 화가를 좋아했다. 빛과 함께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는 색채의 변화 속에서 자연을 묘사하고, 색채나 색조의 순간적 효과를 이용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그들의 작품들이 좋았다. 그림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그림을 보며 행복해하던 내가 언제부터인가 손에서 그림을 놓기 시작했다. 그런 시간이 반복되면서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림에서 완전히 도망쳐버렸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늘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최인선 집사님이 조용히 나를 불러 말씀하셨다.

“집사님, 미대 나오셨죠? 우리 교회에 미술인 모임이 있는데 같이 사역해 봐요.”

그 제안을 듣고 두 손을 저으며 말했다.

“오랜 시간 붓을 내려놓았어요. 전 더 이상 화가가 아닙니다.”

항상 그랬던 것 같다. 도망치듯 삶을 살아왔다. 젊어서는 세상이 무서워 화폭 뒤에 숨었고, 결혼해서는 아이들과 남편 뒤에 숨어서 나를 잊고 살았다. 도망자의 삶을 살아온 나에게 미술인 모임은 너무 부담스러웠다. 차라리 중보자가 되어 기도로 섬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중보자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아트비전으로 이끄셨고, 나는 그곳에서 여러 작가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 중에는 계속 작품 활동을 해오던 작가들도 있었고, 젊은 미술 학도도 있었으며, 나처럼 한동안 작업을 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트비전은 나에게 크리스천 아티스트로서의 목마름을 일깨워 주었다. 여러 작가들과 함께 모임에 힘쓰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말씀 묵상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이가 되었다.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작품 속에 나의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노력했다. 철망 조각들을 이용해 작품을 만들었다. 버려진 철망 조각 속에 보이는 영성함, 완악함, 차가움, 날카로움이 마치 주님을 만나기 전 내 모습과 닮아있었다. 주님을 만나면서 변화된 이야기를 철망을 통해 나누고 싶었고, 철망들을 재구성하면서 나의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했다.

아트비전을 만나게 되어 참 감사하다. 단순히 중보자로 참여했다가 여러 동역자들의 응원 격려에 힘입어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많은 분들이 잠자던 달란트를, 그림에 대한 열정을 일깨워주고, 작업하도록 도와주었다. 아트비전은 나에게 찾아온 하나의 작은 기적이다. 나를 아트비전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트비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는 도구로 더욱 쓰임 받기를 소망한다.

■ 의사사역팀 CMN라파팀 간증



/ 심형섭 팀장(가정사역공동체)

예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을

나는 2008년부터 CMN라파팀 일원으로 안산M센터에서 매월 셋째주에 외국인 치과진료를 하고 있다. 우리팀은 서빙고 온누리교회와 안산M센터에서 외국인진료사역을 하고 있다. M센터에서는 주일 오전 11시에 다양한 민족이 모여 열방예배를 드린다.

우리팀이 M센터 봉사를 함에 있어 간사님들의 수고가 많다. 오후에 진료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리고, 먼저 와서 기다리는 외국인들 접수하고, 카드를 만들고, 순서를 정하는 등 준비를 많이 한다. 외국인들에게 내과에서는 진찰 및 약을 처방해서 드리고, 비타민을 제공한다. 치과에서는 스케일링, 충치치료, 신경치료, 발치 등을 한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치료를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 치료할 곳이 많은 분들이 제법 있지만, 뒤에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 미안하지만 일부 치료를 하고 다음 달에 또 오라고 한다. 몇 해 전부터 수원 살롬팀, 성동광진공동체, 신평로팀이 둘째주와 넷째주에 동역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청년 한동팀이 격월로 함께 해주셔서 M센터를 찾는 외국인들이 치료를 자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몇 해 전 일인데 파키스탄 형제가 어급니 뿌리 쪽에 고름집이 있어 신경관 치료를 받고 있었다. 임시로 가봉한 것을 열어 일주일 동안 소독을 해 줘야 하는데, 한 달에 한번 하다 보니 잘 낫지 않고, 아프고 해서, 불신과 불만이 쌓여 강하게 항의를 했다. 아마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운 상황이 겹쳤던 것 같다. 시간도 늦어서 진료를 마치고 뒷정리를 하고 있

었는데, 정당한 것을 다시 꺼내 치료를 해 보냈다. 감사하게도 그 다음 달에는 증상이 많이 개선되어 마무리를 해주었다. 그리고 평택에서 온 형제가 사랑니 발치를 해 달라고 온 적이 있는데, 뿌리가 많이 휘어져 있어서 애를 먹이는 바람에, 날이 캄캄해 진 뒤에까지 몇시간을 걸려 발치해 주었다. 힘든 하루였지만 마치고 나니 서로에게 보람이 있었고 고맙다고 하면서 갔다.

언어문제로 소통의 장애가 있긴 하지만, 진료하면서 “오늘 예배드리고 왔나요?”라고 물어보고, 진료만 받고 가는 경우에는 다음에는 예배도 드리고 가라고 권하기도 한다. M센터에서는 정말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중국, 몽골, 러시아, 네팔,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우즈베크,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소말리아, 알제리, 튀니지, 에티오피아 등등 아주 다양하다. 주로 안산에 있는 분들이지만, 서울, 의정부, 과주, 평택에서 오기도 한다.

끝으로 M센터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 간사님들, 매주 M센터 예배와 모임을 섬기는 봉사자분들과 저희 라파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M센터에서의 예배와 교제를 통해, 예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한다.

* 이 글은 지난주(5월 1일) 신문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필자의 글과 다른 내용이 실렸기에 정확한 내용으로 바로 잡아 다시 게재했습니다. 다시 한 번 필자와 독자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장로칼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권용한 장로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나는 내적치유학을 섬겼었다. 그 영향인지 몇 년 전 한마음 정신회복예배를 섬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그곳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완곡히 거절의사를 표현했다. 그런데 먼저 섬기고 있던 박성규 장로의 간곡한 부탁과 담당 목사님의 강권(?)으로 승낙하게 되었다.

한마음 정신회복예배를 섬기면서 내가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히려 내가 그들로부터 섬김과 사랑을 받고 있었다. 한마음 정신회복예배는 매주 주일예배와 ‘하나님의 정원’에서(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101호) 치유활동을 하고 있다. 미술치유, 음악치유, 문학치유, 탁구모임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킬트반, 현악반, 성경공부반, 올레길 걷기, 춤 테라피 등의 프로그램은 평일에 운영된다. 영적성장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성경일독학교도 있다. 예배 후에는 정신의학 특강(월 1회)을 통해 의학적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들이 한마음 예배공동체의 일상이다. 올 가을에는 스태프 수련회와 전체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6월 11일과 18일에는 양재 한마음 정신회복예배와 협력해 정신건강 세미나를 연다. 정신건강 세미나는 매회 주제가 바뀐다. 이번 주제는 ‘우울증과 조울병 극복하기’다. 환자와 가족들이 대상이다. 바쁘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스스로 힘든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실 정신병은 환자와 비환자를 정의하는 경계선이 매우 모호하다. 넓게 보면 모두가 잠재적인 요인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히 정신병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전달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환자와 가족들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다.

현대사회에서 우울증은 보기 힘든 질병이 아니다. 누구나 앓을 수 있는 ‘심리적 감기’라고도 표현한다. 우울증에 걸리면 불면증, 낮아진 자존감, 죄책감, 부정적인 생각, 자살충동이 강해진다. 삶이 전체적으로 무기력해진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꿈도 열정도 잃어버린 모세를 호렘산에서 일으켜 세우셨듯이 마침내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유해주시길 믿고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한다.

때로는 성령의 고쳐주심을 기대하고, 기도에만 전념하며 세상의 치료법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은혜를 받아 병이 치유되었다고 믿고, 처방 받은 약을 임의로 끊어 병이 재발하는 경우를 본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병이 치유되는 경우를 많이 보여준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은 의사와 약물을 통해서도 치료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의사와의 상담, 약물치료, 재활훈련 등도 매우 중요한 치료법이다.

또한 정신병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다. 선교관 101호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남들로부터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이 그 문턱을 넘어서기를 바란다. 환자로서, 보호자로서, 스태프로서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예배와 진료, 재활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다. 지금은 ‘하나님의 정원’이라는 작은 공간을 주셨지만 머지않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주실 줄로 믿는다.

권사칼럼

내가 기쁘게 사는 이유



조문숙 권사
(분당A공동체)

“하나님, 저 오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최고로 좋고요. 내일 하루 더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세요.”

내가 매일 밤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이다. 내가 47살에 남편이 사고로 하나님 품에 안겼다. 8개월 뒤인 2001년 3월, 마음이 많이 힘들 때 지인의 소개로 온누리교회에 왔다. 그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깊이 위로해 주셨다. 약 2년 동안은 예배만 쫓아다니며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다 2003년부터 와이미션을 10여 년 동안 섬겼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선교사님을 많이 만났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나도 선교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올해 2월부터 나는 63세의 나이로 장기선교훈련학교(OSOM)에서 훈련받고 있다. 나에게도 사역이 우선이 아니다. 오늘 하루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먼저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고등학교 때다. 초등학교 시절에도 교회에 갔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다. 중학교 시절에는 학교 도서관에서 봉사하면서 철학책을 정말 많이 읽었다. 그때는 철학책이 그렇게 재미있었다. 나이는 어렸지만 인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한번은 “이 무한한 공간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는 파스칼의 말이 내 마음을 강타했다. 순간 죽음이 무엇인지, 저 하늘은 무엇인지 등 많은 질문이 내 머리속을 오갔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공허함이 있었다. 그러다 부모님을 떠나 고등

학교에 가게 되면서 공허함과 갈망이 더욱 커졌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고등부 선생님이 새로 오셨다. 그 선생님은 우리에게 눈을 감으라고 하시더니 질문을 하셨다.

“구원 받은 사람은 손들어보세요.” 나는 손을 들 수 없었다. 그리고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큰 혼란에 빠졌다. 지금까지 주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밥도 먹을 수 없었고 잠도 잘 수 없었다. 내 죄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했다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다. 고등부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것조차 두려웠다. 처절함 속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생님에게 답이 있을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다. 2주 만에 다시 교회를 갔다. 그날 선생님이 구원이 궁극한 사람은 남으라고 했다. 그 때 나를 비롯한 몇몇 지체들이 남았다. 선생님이 가장 먼저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으라고 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 5:24).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심이 느껴졌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날 나는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선생님께 학교를 그만두면 안 되는지 물었다. 왜냐하면 학업이 아니라 성경이 인생의 답인데 하루 빨리 영혼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에서였다. 그 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문숙아, 나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 일도 오늘과 똑같이 살거야”

나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선생님은 이미 삶이 예배였다. 나는 그 말을 4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마음에 새겨두고 있다. 이것이 내가 오늘도 기쁘게 사는 이유다.

신앙에세이



오은규 목사
(서빙고 특별헌초대공동체)

초상집과 잔칫집에 동시에 초대받는다면 사람들은 잔칫집을 선호할 것이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초상집은 슬픔이 흐르는 곳이고, 잔칫집은 기쁨이 넘치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는 삶의 원리를 쾌락추구라고 했다. 사람들은 유쾌한 것을 좋아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삶의 만족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다른 말씀을 한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전도서 7장 2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전도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할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언젠가는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해봐야겠다고

다짐했지만 일상이 바빠 잊고 살았다.

그러던 중 최근 큰아버지의 입원소식을 듣게 되었다. 오랜 시간 큰아버지를 뵈지 못한 채 살아오다가 약 20년 만에 병문안을 갔다. 큰아버지는 혈액암 진단을 받았다. 나는 큰아버지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큰아버지는 조카의 기도를 받는다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는 성도의 모습으로 임했다. 나의 간절한 기도에 큰아버지는 연신 “아멘”이라고 반응하셨다.

지난주 큰아버지께서 천국으로 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병문안을 한지 불과 2주밖에 안되어 놀란 마음으로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나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장례를 치렀다.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것은 결코 유쾌하거나 기대되는 일이 아니다.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죽음을 직면하기 싫을 때도 많았다. 그동안에는 장례를 집례하기 위해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유가족으로 동참했다. 약간은 낯선 경험이었다.

장례식장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큰아버지는 병명을 알지 못한 채 입원해 계셨

다고 한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 토요일에 모든 가족들을 불러 유언을 남기셨다고 한다. 모든 자녀들의 축복을 빌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을 당부하셨다고 한다. 큰아버지께서 가족들을 불러 놓고 유언을 남긴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천국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이 내용을 전해 듣고 전도서 7장 2절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었다.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초상집에 가면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주를 위해 산다고 해도 매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체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장례식장을 가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하다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신다. 평안함과 기쁜 마음으로 천국으

로 가는 모습을 자주 본다. 큰아버지 역시 큰 고통 없이 가족들을 불러 유언을 남기시고 새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

전도서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고 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을 그의 마음에 돌지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인간의 한계성과 유한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이다.

필자가 상담하고 있는 32세 내담자가 있다. 소위 잘나가는 고학력, 전문 직종 종사자에 멋진 외모까지 가진 사람이다. 그는 삶의 쾌락과 즐거움을 취해왔으나 그런 것들이 모두 허무해서 상담을 받으러 왔다. 삶의 참된 기쁨과 만족은 어디에 있을까. 전도서 7장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잘 묵상해 보기를 권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사명자의 고백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귀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 죽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입니다. 언젠간 이 세상에서 끝날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육신의 생명과 영적 생명을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수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길이라면 육신의 생명을 다해서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피 값으로 산 교회

넷째, 교회입니다. 양 떼라고 표현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양 떼를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 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 떼를 해치려 할 것을 압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제자들을 빼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3년 내내 여러분 모두에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받게 하십시오”(28~32절).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 떼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샀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

치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고귀한 피 값으로 산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늘 위험이 있습니다. 흉악한 이리 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진리를 왜곡해서 자신을 따르게 하는 위험입니다. 거짓된 지도자는 하나님을 따르게 하지 않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가르칩니다. 또한 양 떼를 아끼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 숨어있는 이리 떼들이 얼마나 많은 양 떼들을 해치고, 혼란스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하게 하는 자들로부터 성도를 지키라”고 당부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진리를 따르게 하고, 비전을 따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 가운데 말긴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올바르게 갈 수 있을까요. 은혜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기초해서 믿음이 자랄 때 올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보면 사람이 만든 규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습니다. 절대 말씀을 바꾸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와 규칙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문화에 따라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도 말씀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칙에 맡기면 안 됩니다.

주는 것이 복되다

다섯째, ‘주는 것이 복되다’입니다. “나는 그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이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서 썼습니다.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33~35절).

사도 바울은 많은 필요가 있었지만 받기보다 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손수 벌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혹시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장애물이 될까봐 주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자비량목회 패러다임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전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교회에 너무 의지하다 보면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영성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을 도우면서 사역하려는 사도 바울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잘살자는 것 자체는 비전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잘살 것인가가 비전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비전을 가지면 경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잘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한동대학교의 비전은 “배워서 남주자”입니다. 지식을 쌓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배울 때 올바른 교육의 비전이 됩니다. 여러분, 기업을 어렵습니까. 하나님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잘살아야겠습니다”라고 기도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을 더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경제 원조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이 그런 비전을 제시할 때 나라의 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단순히 잘살기를 원한다는 것은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힐 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잘사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잘사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주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잘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장로들에게 이런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겸손과 눈물을 기억하라는 비전입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을 인정하라는 비전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위해 헌신하라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라는 비전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비전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비전을 마음에 새기고, 이별할 때 감격의 눈물, 감동의 눈물, 진정한 사랑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부동켜안고 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두란노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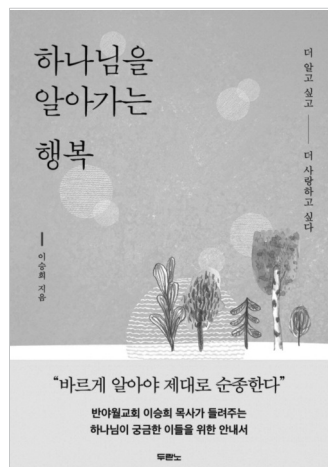
행복이며, 특권이고, 영광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복〉

이승희 저 | 두란노 | 12,000원

신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면 신앙의 토대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고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창조하심, 채워주심, 언약하심, 시험하심, 훈계하심 등 14가지 키워드로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삶에서 말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서술했다.

이 책의 저자 이승희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고 강조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마치 숙제와 같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저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행복이며, 특권이고, 영광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바르게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도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은 계신다”

〈직설〉

박영선, 김관성 저 | 두란노 | 13,000원

이 책에는 박영선 목사와 김관성 목사의 대화 내용이 담겨있다. 두 사람은 믿음의 본질과 신앙인의 삶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후배 목회자 김관성 목사가 직접적이고 솔직한 질문을 던졌다. 그 질문들에 대해 오랫동안 목회한 박영선 목사가 답했다. 깊이 있는 답변이 돋보인다. 그 둘이 진행한 10회에 걸친 대담은 삶, 신앙,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아는 방법과 기대와 능력보다 더 큰 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중략) 믿음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실 안다는 것도 적합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른다 해도 믿음은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이 계시듯이 말입니다.”



Acts 29

게시판

2016년 5월 8일(주일) | 제1098호

14 온누리신문

서빙고 O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본당 월요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손정훈 목사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김국중 팀장(010-8885-6757) S브릿지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정섭 팀장(010-3301-289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9:0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7: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20 선교관 한동을 문의: 조승찬 팀장(010-2307-5547)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본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II, 2층 캄보디아 예배 10:0 안산M센터I, 4층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II, 3층 몽골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2층 네팔 예배 11:00 안산M센터II, 4층 열방 예배 09:00/11:30 안산M센터I, 1층 태국 예배 14:30 안산M센터II, 3층 스리랑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4층 베트남 예배 14:30 안산M센터I, 3층 필리핀 예배 15:00 안산M센터I, 4층 다문화꿈방예배 11:00 안산M센터I, 3층 다문화파워웨이브 11:00 안산 스타트리 서빙고 몽골어예배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예배 14:30 선교관 301호 네팔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방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전 몽골어예배 14:20 인전 온누리교회 평택 몽골어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공자정 집사(010-5101-461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30~3: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10:30~12:30 -셔틀운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CMN 해외 아웃리치 봉사자 모집 일시: 8월 12일(금)~8월 16일(화) 장소: 네팔 카트만두 인근 모집: 의료인(의사, 간호사, 약사,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한의사), 봉사자(어린이 사역, 전도사역) 사역: 의료사역, 어린이 사역, 구호 사역 문의: 이대현(010-3387-7764) CMN 토브팀 해외 아웃리치 봉사자 모집 일시: 7월 29(금)~8월3(수) 장소: 인도네시아 살라피가(스마랑 부근) 모집: 의사, 한의사, 약사, 치위생사, 미용사역, 어린이사역, 봉사자 회비: 150만원 (항공료 포함) 문의: 010-8902-5987(김택수 팀장) CMN 마하나임팀 해외 아웃리치 봉사자 모집 일시: 2016년 7월 18일 (월) ~ 7월 24일 (일) 장소: 인도네시아 롬복 모집: 의료인(특히 피부과, 비뇨기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신과, 한의사 및 간호사) 및 미용사, 봉사자 사역 내용 : 의료 (양한방), 미용, 진료 지원 문의: 권세운 팀장(010-8898-3719) CMN BEE팀 해외 아웃리치 봉사자 모집 장소: 인도네시아 롬복 일시: 8월 23-28일 (주일 오전 도착) 사역: 의료, 미용, 한방, 어린이, 경로 사역 회비: 130만원 모집: 의료인 및 봉사자 문의: 윤상엽 팀장 (010-9439-1180) 미얀마 단기의료선교 팀원 모집 일시: 7월 9일~7월 14일 장소: 미얀마 양곤 모집: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 봉사자(미용을 포함하는 모든 분야) 문의: 김조겸(010-4369-1211) 몽골 아웃리치 봉사자 모집 장소: 몽골 울란바트르 인근 빈민게르촌 일시: 7월 27일~7월 31일 사역: 의료사역, 어린이사역, 미용사역 등 모집: 의료인(의사, 약사, 간호사), 미용사, 어린이사역 경험자, 봉사자 회비: 100만원 문의: 장성수 총무(010-6652-3596) *게시판광고미감 목요일 오후 4시	양 재 O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3:0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라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 (총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 (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총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홀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한국어) 영아부: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총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은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은유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렘청년부예배: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최재호 전도사(010-4336-3528) 사랑부 교사 모임 문의: 조현배 총무(010-3342-9459)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3912-938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목상의집(WIN) 주일예배 일시: 매 주일 10시 남한산성 목상의집 *셔틀운행(010-8870-9313) -양재역10번출구 9:00 출발(던킨도너츠) -북정역 2번출구 9:20 출발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2000선교 프랑스어예배 선교세미나 일시: 5월 9일~30일(매주 월) 오후 7:30 양재 드림홀(지하2층) 담당: 제라르 티네베 목사(통역 있음) 문의: 김기정 총무(010-3912-9393) 양재이천선교 스포츠선교팀 '제4회 온누리 열방 탁구대회' 일시: 6월 6일(월), 오전 9시~오후 6시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하용조기념홀 대상: 전 캠퍼스 온누리 등록교인 참가비: 개인 단식 1만원, 단체 4만원 접수: 1차-16일, 2차(최종)-30일까지 문의: 고길범 팀장(010-3772-3686) 양재 일대일 양육자반(김원 장로반) 개강: 5월 22일(주일) 오전11시 30분 장소: 이스라엘홀(지하2층 식당 옆) 대상: 세례등록교인, 동반자과정생 수료한 자, 반드시 순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신청: 아이스쿨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 이상수 집사 010-5315-6396 운영은 간사 02-570-7349
--	---	---	---

부 천

O32.322.9686

주일예배

1부 오전7:00/2부 오전9:00/3부 오전11:30/4부 오후 2:00/5부 오후4:00(대청예배)/6부 오후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5:20 본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9:00, 11:30 / 유치부-오전9:00, 11:30
유년부-오전9:00, 11:30 / 초등1부-오전9:00
초등2부-오전11:30 / 유초등부-오후2:00
중등부-오전11:30 / 고등부-오전9:0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예배 매주 수 오후 9:0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30 3층 꿈아이를
사랑부예배(장애우) 매주 오전11:30 3층 꿈아이를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비전홀

수 원

O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5부 오후 4:00
대학청년 주일예배
대학부 14:00 경찬홀 청년부 15:00 사랑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19:40 본당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오전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초1~3학년), 11:30(초1~2학년) 사랑홀 / 초등부 9:00(초4-6학년), 11:30(초3-4학년) 경찬홀 / 소년부 11:30(초5-6학년) 믿음홀 / 중등부 9:00 비전홀 / 고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어린이&중고등영어) 11:30 비전홀

대 전

O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시 본당 / 4부 오후 4시 본당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5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09:00
꿈땅(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O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09:00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
주중예배
온누리미션예배(인도, 네팔) 매주 주일 오후 7:30 사이닝글로리
새벽예배(월~토)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목양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소년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중등부 주일 오전 11시30분 기쁨홀
고등부 주일 오전 09시00분 기쁨홀

평 택

O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대학청년)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본당
주중예배
수요여성예배 수 오전 10:30 본당
수요온누리워십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영아) 오전 11:30 본관2층
꿈이지라는땅 오전 9:00 본관2층
파워웨이브 오전 9:00 파워웨이브교육관

인 천

O32.437.9686

주일성인예배

1부 오전 9시 컨벤시아 1층 113-115호
2부 오전 11시 컨벤시아 1층 113-115호
3부 오후 1시 컨벤시아 1층 113-115호
Web대학청년 오후 2시 프리스페이스 6층
차세대예배
-컨벤시아(오전11시)
영아부 102호 / 유치부 110호
유년부 107호 / 초등부 104호
-프리스페이스 6층
중등부 오전 11시 / 고등부 오전 9시
사랑부예배(장애우) 오전 11시 컨벤시아 1층 104호
주일국제예배
해튼로/크리스티아영어예배 오후 1시 컨벤시아 1층 109호
몽골어예배 오전 11시 스마트밸리
수요오전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프리스페이스 6층
수요부흥예배 매주 수 저녁 7:40 프리스페이스 6층

강 동

O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본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지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지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두란노홀
사랑부 오전 9:00 사랑홀
주중 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본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본당

양 지

O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
2부 예배 / 11:00 / 2층 김사무엘홀
3부 두드림예배 / 14:00 / 지하1층 박모세홀(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영아/ 11:00 / 3층 주선애홀 (영성중계)
예수님의 꿈아이(유아,유치)/ 11:00/지하1층 무어홀
꿈이지라는 땅(유년) / 11:00 / 지하1층 위더슨홀
꿈이지라는 땅(초등) / 11:00 / 지하1층 길보론홀
파워웨이브 / 11:0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수요선교예배 / 19:20 / 1층 시안홀

5월 비전헌금

군선교와 기드온

5월 비전헌금은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군선교와 무료로 성경을 배포하고 있는 기관 '기드온'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5월 8일 온누리교회 모든 예배에서
5월 비전헌금을 봉헌합니다

